추 모 사

이 땅에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해주시고, 종문(宗門)을 환하게 열어 주신 도의국사 각령전에 분향 배례하고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국사의 선견지명과 이를 실천하신 삶 그대로가 선법(禪法)과 신심(信心)의 토양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후손대대로 정진의 싹을 틔우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자 시대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현세(現世)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사(祖師)를 추모하는 마음이 곧 정진의 힘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시대에 행하는 모든 실천에는 조사의 숭고한 향기가 배어있기에, 이를 널리 선양(宣揚)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후손의 당연한 도리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빛나는 유산(遺産)이 밝혀주신 길을 항상 성찰하여 걸으며, 이웃과 사회 모두가 유익한 오늘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로 만들고, 서로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마음이자 불은(佛恩)에 대한 성실한 보답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서로 갈등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오니,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和睦)하게 살아가는 길에 증명(證明)으로 항상 비추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의 수행정신을 이어받아 사부대중 모두가 화합에 이르고, 그 결실

에 화답(和答)하여 이웃과 사회 모두에 편안한 웃음이 흐르도록,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삶이 모두의 일상(日常)이도록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조사의 천년 해안에 거듭하여 공경의 배례를 올리며, 후대(後代)의 부족함을 서로 점검하며 백년의 앞길이나마 열어가고자 하오니, 조사의 크신 자비심과 공덕으로 섭수하시어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바라옵니다.

불기2561년 5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